



부산·울산·경남 광역의회 손 잡는다 ▶4면

부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경상남도의회가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9월 30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장,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장...



보성 예당고, 인성키움·나눔 힐링캠프 ▶7면

보성 예당고등학교(교장 이동호)는 지난 9월 22일 학교 내 대안교실 HWHH 동아리 및 마음챙김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키움·나눔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 바탐방 넷앙고등학교...



부산시의회, 교육환경 개선 해법 모색 ▶11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9월 2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12월 15일 나가면 아이들이 졸업 못 합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 “마지막 학교생활만큼은 지켜달라”

“12월 15일 나가면 아이들은 졸업을 못 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 퇴거를 앞두고 졸업을 불과 한두 달 앞둔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학부모들이 관계기관에 절박한 호소를 보내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무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스마트빌리지 54세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가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가 있다. 한 가정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은 12월 말까지 이어지고, 중학생 자녀는 2027년 2월 3일, 초등학교생 자녀는 2월

12일 졸업식이 예정돼 있다. 퇴거일과 졸업식 사이에는 불과 한두 달의 시간이 남는다.
12월 15일 퇴거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들은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전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들은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아이에게 12월 15일은 단순한 퇴거일이 아닙니다.”
학부모인 조 모씨는 “어른들에게는 계약상 날짜 하나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교생활이 걸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몇 년 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담임교사와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며 졸업장을 받는 공간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수년간 함께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한다.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의 환경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졸업은 한 번뿐”이라며 “성적이나 임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선생님께 인사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퇴거 유예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입주민에게 장기간 거주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졸업 등 명확한 학사일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학생 가정에 대해서만 현실적

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아이들의 교육과 졸업이라는 문제가 앞서 몇 주 또는 한두 달의 유예가 가능한지 관계기관이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지금의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때문에 아이들의 마지막 학교생활이 끊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스마트빌리지에서 생활하며 국가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에 참여해 왔다. 아이들 역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과 학교에서 지켜보며 성장했다. 주민들은 그만큼 사업의 마지막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과 교육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 주민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라면서 스마트빌리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경험했다”며, “미래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끝나는 순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현재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퇴거 유예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졸업은 한 번뿐입니다.”, “12월 15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아이들이 마지막 학교생활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웃고, 선생님께 인사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스마트빌리지 주민들은 사업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계약과 행정에 날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교육과 삶을 함께 바라봐 달라고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hnh@

교육감協, 김민석 대표와 면담 지방교육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배분 원칙 법제화 요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하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른 재정 전망,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 6901억원 상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와 정부 개편안 적용 이후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고, 새로운 재정 산식이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식이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성 기자 kbs@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문산초 현장 안전 살펴

등굣길 맞이행사 이어 시설 현황 등 점검... 학생·학교 중심 안전 지원 강화

김대중 전남광주동합특별시교육감은 9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 문산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교·학생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기 위

해 마련됐다. 김 교육감은 등굣길 맞이행사에 이어 학교 곳곳을 순회하며 시설 현황, 교육활동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산초는 ‘무지갯빛 꿈 찾기’, ‘기후생태환경 자치학교’, 체육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특색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교 건물 내 CCTV 설치 확대 ▲학교 앞 차량 문제 해소를 위한 ‘안심 승하차 존’ 설치 지원 등이 건의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구축하겠다”며, “학교가 행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집



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BENEFIT 01

연계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사입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1588-3886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가상자산 순유입 반토막·해외 순유출 2배”

박수영 의원 “올해 1~8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순유입 2조 500억, 작년 대비 56.8% 감소”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사 진·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순유입이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3일 밝혔다. 또, 해외 거래소로 순유출된 자산 규모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피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의실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순유입(외부유입에서 외부유출을 뺀 금액)은 2조 500억 원이었다. 작년 1~8월 순유입액(4조7400억 원) 대비 56.8% 감소했다. 또 5대 거래소의 원화예치금도 지난 1월 7조

6900억 원에서 8월에는 5조 2000억 원으로 32.3% 줄어 들었다.

반면 해외거래소로 빠져 나간 자산은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이 코빗과 고팍스 2곳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해외거래소로의 순유출액은 480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57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연동금액도 지난 1월 4765억 원에서 8월 6121억 원으로 28.5% 증가했다. 원화예치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6.1%에서 11.6%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내년 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우려했던 해외거래소로의 자금 순유출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비롯한 전문



가와 야당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00조 원이 넘고, 계좌 수는 1100만 개에 이른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까지 약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당국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국제청은 가상자산 세액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묻는 박수영 의원실의 질의에 “해외 과세사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선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강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광주 동아여고 김규빈 주무관, 헌혈증 기증

2006년부터 345회 헌혈... 누적 기증 300매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 김규빈 주무관이 9월 21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각각 100매를 기증했다. 김

주무관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각각 100매를 기증한 데 이어 이

번에 100매를 추가하며 누적 기증량은 300매가 됐다.

김 주무관은 광주진흥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06년 학교를 찾은 헌혈버스에서 처음 헌혈한 뒤 현재까지 총 345차례 참여했다.

헌혈증 나눔은 지난 2012년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친구에게 30매를 전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각각 100매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 100매를 추가로 전달하면서 협회 누적 기증량은 300매가 됐다.

지난 2024년에는 누적 헌혈 3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社 說

수능 서·논술형 도입, 미래 교육을 위한 필연적 결단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깨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단 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 현행 오피선다형 수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 인재 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서·논술형 도입은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정답 하나만 을 고르는 시험에 맞춰진 학교 수업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암기 기계로 전락시켰다.

시험이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 수능에 단 한 문항이라도 서·논술형이 도입된다면, 공교

육 현장은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물론 주관식 평가가 가져올 체질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명의 채점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대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결국 입시 불복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과 정교한 복수 채점 시스템을 결합하면 인간의 주관성을 최소화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국제 바칼로레아(IB)나 주요 선진국의 대입 시험은 서·논술형 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그 공정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정답 찾기만 하다 세계 무대에서 낙오할 것이다.

따라서 국교위는 흔들림 없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되,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남생명과학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4-H 과제경진대회 대상

2학년 박시하·장은별·남상준 학생·지도교사 김석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 동반 수상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일식)가 지난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4-H 과제경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차지하며 미래 친환경·융복합 농업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전남생명과학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 ‘즐거운 농업생활 성과발표’ 분야에 출전한 2학년 박시하, 장은별, 남상준 학생과 프로젝트를 지도한 김석훈 교사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을 동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생명과학고 팀은 ‘삼과일제, 밭에서 이룬다’를 주제로, 산수국의 천연 감미 성분을 활용해 인공당을 대체한 건강 디저트 개발 및 상품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산수국의 고유한 단맛에 세 가지 이색 호박 품종의 품미와 특성을 접목해 ▲갈무리신 호박을 활용한 에그타르트 ▲캔디로스터 호박을 더한 쿠키 ▲땅콩호박으로 만든 호박발랭이 등 차별화된 웰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디저트 라인업을 완성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디저트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물 직접 재배부터 가공·제품, 시제품 유통 및 판매까지 농업의 6차 산업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내며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농업의 즐거움에 가치를 더해 땅에서 일군 값진 결실”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팀장 박시하 학생은 “밭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디저트로 상품화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업의 큰 가치와 가능성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

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젝트 전 과정을 밀착 지도한 김석훈 지도교사는 “이번 대상 수상은 밭에서 땅 흘리며 열정적으로 일한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4-H 정신(지·덕·노·체)을 바탕으로 작물 재배부터 가공·창업에 이르는 현장 맞춤형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농생명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호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도암중, 3학년 전원 ‘드론 국가 1종 자격증’ 취득

드론축구·정비·자격 취득 연계 미래형 기술 역량과 공동체 의식 키워



전남광주 화순도암중학교 3학년 재학생 전원이 ‘조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국가자격증을 취득 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운영한 학교 특색교육 ‘화순도암중sky 드론축구

단’을 중심으로 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활동을 연계해 꾸준히 교육한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는 드론이 스포츠를 넘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전문 자격 취득까지 이어져 미래 진로 준비까지 되고 있다.

화순도암중학교는 전용 드론축구장과 드론정비실을 구축해 체계

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은 드론 비행 조종과 정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 기능을 익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업과 배려, 책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 드론대회와 드론 퍼포먼스 행사에 참여하고, 인근 초등학교 진로체험과 화순교육지원청 드론 진로체험 부스 운영에도 함께하며 자신들이 익힌 기술과 경험을 나눴다.

화순도암중학교는 앞으로도 드론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술 역량과 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드론축구 활동이 학생들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협업과 배려, 책임을 배우는 공동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김희정 “복지 예산, 학생 안전·교육 질 높여야”

교육부, 내년부터 교부금 페널티 최대 100억 원 추진 예정

김희정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매년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5일 밝혔다. 반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인 D등급 노후 학교 건물이 74개에 달하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62%(7,504개교)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편성액은 총 2,089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2026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505억 4,6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할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9.9% 늘어날 정도로 교육청의 현금·선심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돼 있다.

해당 자료는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에 활용되는 원가통계비목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원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며, 현물



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의 현금·선심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돼 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전남이 83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교에 월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광주 566억 6,500만 원 ▲서울 510억 7,400만 원 ▲전북 237

억 6,700만 원 순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인천 73억 2,300만 원 ▲충남 66억 2,000만 원 ▲경북 63억 9,800만 원 ▲경남 57억 9,600만 원 ▲강원 54억 5,500만 원 ▲울산 29억 400만 원 ▲세종 14억 1,4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미사용 태블릿PC 방치, 교직원 주택 임차비 346억원 무이자 대출 등 교육청의 부적절하거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2025년도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대한민국 웹기술 세계 제패… 5연패 기록

여수정보과학고 손현빈,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수상

전남광주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교장 김순옥) AI디자인과 출신 손현빈(삼성전자) 선수가 '2026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기술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특히, 이번 금메달로 대한민국은 해당 직종 5연패를, 여수정보과학고는 단일 학교 출신 선수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게 됐다고 10월 3일 밝혔다.

올해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 68개국에서 1,385명의 차세대 기술 인재(만 17~22세)가 모여 총성 없는 기술전쟁을 펼친 무대다.

한국 대표단은 50개 직종에 56명이 출전했으며, 손현빈 선수는 IT 분야의 꽃으로 불리는 '웹테크놀로지스(Web Technologies)' 직종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수정보과학고의 '경이로운 연승 행진'이다. 대한민국이 2017년 아루바 대회부터 이어온 웹테크놀로지스 5연패의 역사 중, 최근 세 번의 금메달이 모두 여수정보과학고에서 나왔다. 2022년 고시현, 2024년 신승빈 선수에 이어 2026년 올해 손현빈 선수까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여수정보과학고



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웹 기술 인재의 요람'임을 완벽하게 증명해 냈다.

손현빈 선수의 금메달 뒤에는 남다른 땀방울과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2024년 여수정보과학고 AI디자인과를 졸업한 그는 고교 시절 장경환 지도교사의 권유로 '웹디자인 및 개발' 동아리에 가입하며 처음 기술에 눈을 떴다.

이후 묵묵히 실력을 갈고닦은 그는 2023년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연달아 제패했다.

이어 2024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피 말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통과하며 태극마크를 달았고, 현재는 삼성전자 기능올림픽 사업부에 재직하며 세계 무대를 준비해 왔다.

손현빈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에서부터 탄탄하게 다져온 기술과 성실한 준비 과정이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벽한 소감을 전했다.

김순옥 교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 온 학생이 세계 무대에서 값진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롭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3856명·251억여 원 학자금 장기연체채권 매각 대기”

김문수 의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연내 처리 위해 후속 절차 차질 없어야”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10월 1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은 3856명, 251억 7400만 원 규모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채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채권 매각 근

거가 없어 대출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매각)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된다”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매각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재단은 양도자산 확정, 매각명세 제출·평가, 장학재단 이사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은 약 135억 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 7400만 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134억 9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상환학자금 원금 141억

5800만 원에 손실률 95%를 적용한 134억 5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이미 손실이 보전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은 “기확정된 손실보전금만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른 손실확정액은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내 매각을 위해 입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여상 학생 9명, 9급 공무원 필기 전원 합격

16년 연속 합격자 배출… 직업계고 취업 경쟁력 입증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정현범, 이하 전남여상)는 지난 8월 29일 실시된 '202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에서 응시 학생 9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여상은 행정직군에서 일반행정 5명, 세무 2명, 관세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대상 공무원 채용이 도입된 2011년부터 16년 연속 합격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까지 배출한 최종 합격자는 총 74명이다.

전남여상은 '공무원반'을 통해 1학년부터 3년간 필기시험 대비 방

과후 수업과 전공 스터디, 스피치 훈련, 모의 면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학생들의 체계적인 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

이연행 학생은 “1학년 때부터 학교의 공무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믿고 꾸준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무원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취업 성과가 잇따랐다. 올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34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남여상은 올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형 개발 사업' 전국 24개 거점학교 가운데 상위 3개교에 주어지는 우수학교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총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생 대상 취업특강과 면접 지도, 정장 대여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범 교장은 “이번 전원 합격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교직원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함께 만든 성과다”며 “재학 중 공직·취업 준비부터 졸업 이후 사회 진출까지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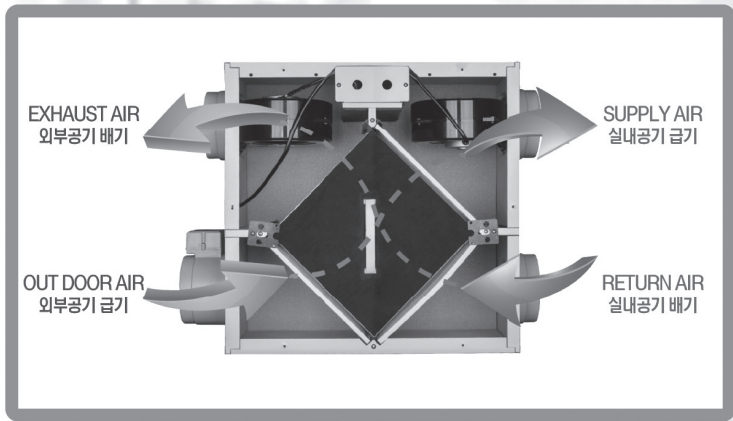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서울교육청, AI 시대 협력적 수업설계 가이드북 발간

정근식 교육감 “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 만들어 갈 것”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교사의 수업설계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수업, 서로 깊어지는 배움’(협력적 수업설계 가이드북 with AI)을 9월 29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AI가 수업 자료를 쉽고 빠르게 생성하는 시대가 됐으나,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학생의 의미 있는 배움으로 연결할 것인지 동료 교사와 함께 설계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가이드북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교사 간 협력적 수업설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함께 성장하는 교사, 다섯 가지 질문’(AI·디지털 기반 수업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교사들이 타당하고 효과적인 AI·디지털 기반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개별



교사의 현장 연구와 실천을 넘어 교사 간, 그리고 교사-AI-교사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선행 연구 분석과 전문가 협의, 수개월 간의 현장 적용을 거쳐 완성됐다.

가이드북은 ‘왜 함께 수업을 만들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함께 수업을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팁 준비 ▲분석 ▲설계 ▲개발·실행 ▲성찰·평가 등 5단계의 활동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담았다.

특히 교사의 주도성과 협력성을 촉진하는 AI 활용 방안을 담고,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협력적

수업설계 지원 AI 에이전트 프로토타입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점에 눈에 띈다.

다만 가이드북에서 AI는 교사의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 간 협력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조력자로 규정된다. 기존의 ‘교사-교사’ 협력을 ‘교사-AI-교사’ 협력으로 확장해, 교사팀이 AI와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넓히고 동료와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조정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교사가 맡는 구조다. 해당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발간

에 이어 ▲감사 양성 ▲실천교사 연수 ▲단위학교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력적 수업설계가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AI 시대일수록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왜 가르칠지 판단하고 성찰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북이 서로 깊어지는 배움을 함께 만들어 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 직업계고, 국제기능올림픽서 세계 기술력 입증

자동차·디지털콘텐츠·가구·실내장식 등 다양한 분야서 성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년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도내 직업계고 출신 선수들이 은메달 1개와 우수상 4개를 획득하며 세계무대에서 경기 직업교육의 기술 역량을 보여줬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에는 대한민국 선수 56명이 50개 직종에 출전했으며, 대한민국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해 모두 40개의 메달과 우수상을 기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직업계고 출신 선수 5명은 자동차와 모바일앱개발, 디지털게임아트, 가구, 실내장식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은메달 1개와 우수상 4개를 획득하며 학교에서 쌓은 전공 역량을 세계 수준의 숙련기술로 발전시킨 성과를 거뒀다.

한림고등학교 출신 임가는 선수는 모바일앱개발 직종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경기자동차과 학교등학교 출신 장태준 선수는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 안산공업고등학교 출신 김민정 선수는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에서 우수상을 획득했으며, 안양공업고등학교 출신 윤정민 선수는 가구 직종, 부천공업고등학교 출신 이다는 선수는 실내장식 직종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일반고 출신 선수의 성과도 이어졌다. 송림고등학교 출신 남윤희 선수는 화훼장식 직종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경기지역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성과를 세계무대에서 입증했다.

이번 대회 성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전공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현장 경험과 국가대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수준의 숙련기술



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자동차차체수리와 모바일앱개발, 3D 디지털게임아트, 가구, 실내장식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선수들이 고르게 입상하면서 경기 직업교육이 전통적인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와 디자인, 생활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기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혁규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기술로 당당히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의 성과는 경기 직업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과”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백승아 의원 “軍특성화고, 충원율 77.3%… 부서관 임관도 감소”

정원 늘었지만 선발인원 10.3% 감소… 4년간 국방기술장려금 18억 6445만 원 국고액 환수

군 초급간부 이탈과 충원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부서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충원율과 졸업 후 부서관 임관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도이탈 등에 따른 국방기술장려금 환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돼 학생들의 지원과 군 입대, 부서관 임관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77.3%로 나타났다 밝혔다.

2023년 89.3%였던 충원율은 2024년 73.7%로 15.6%포인트 하락한 뒤 2025년 73.5%, 2026년 77.3%로 최근 3년 동안 70%대에 머물고 있다.

군 특성화고의 전체 정원은 증가했지만 실제 선발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02명이었던 총 정원은 2026년 1388명으로 86명, 6.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 10.3% 감소했다.

졸업 이후 실제 군 입대로 이어지는 인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군 특성화고 졸업 후 군 입대 인원은 2021년 1072명에서 2025년 912명으로 160명, 14.9% 줄었다. 2022년 129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130명, 20.6% 줄어 군 특성화고 교육이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군 복무와 부서관 임관으로 연결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특성화고 제도는 직업계 특성화고 학생 가운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으로 입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 부서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았으며, 현재 전국 43개 학교에서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도이탈에 따른 환수 문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 특성화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방기술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현금 200만 원과 피복비 30만 원을 지원하며, 진로 변경 등으로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서관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국방부 제출자료를 보면 2023

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4년 동안 국방기술장려금 환수 대상자는 모두 1778명이며, 국고 환수액은 18억 6445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 규모는 2023년 620명·6억 7800만 원, 2024년 523명·5억 6940만 원, 2025년 384명·4억 1250만 원, 2026년 8월 말 기준 251명·2억 45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의 환수 인원이 12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액은 13억 2000만 원이었다. 이어 해병대가 229명·2억 4665만 원, 해군이 166명·1억 6280만 원, 공군이 123명·1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군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습득한 전문기술을 실제 군 직무와 연결하고 졸업 후 군 복무와 부서관 임관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과 군 인력 양성을 결합한 제도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서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문교육 인력과 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60원

정근식 교육감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1만 2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원보다 2060원

높은 119.3% 규모다.

2027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을, 재정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의·의결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

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및 행정지원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촌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평평군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0년 영화도시 부산, 시민과 함께 새 30년 연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동네방네비프·커뮤니티비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개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부산시가 후원하고 (사)부산국제영화제가 주·주관하는 이번 영화제에는 59개국 247편의 공식 초청작이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월드 프리미어로 첫선을 보이며, 경쟁 부문에는 14편의 작품이 초청돼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조명한다.

또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픈토크·스페셜토크·엑티비티 등 세계 각국의 영화인과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작가연맹(FIAPF)의 'A-리스트(A-list) 영화제'로 공식 선정되며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울러 경쟁 부문 최고상인 '부산 어워드(Busan Award) 대상' 수상작에 미국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부산에서 발굴한 작품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더욱 탄탄해졌다.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기획·

투자·제작·배급이 이어지는 아시아 영상 산업 비즈니스의 장도 펼쳐진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제21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서는 지식재산권(IP), 글로벌 투자·배급, 시네마틱 인공지능(AI), 뉴미디어 등 아시아 영상 산업의 최신 흐름을 다루는 7개 부문 6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아시아 장편영화 프로젝트의 투자·공동제작을 잇는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원천 콘텐츠의 영상화를 모색하는 '부산스토리마켓(BSM)', 기술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노아시아(InnoAsia)' 등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한다.

영화의전당을 벗어나 일상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동네방네비프'는 부산을 넘어 양산, 서울 등 17개 지역으로 무대를 넓혀 지

역 사회와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한다.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포동 일원에서 열리는 '커뮤니티비프'는 관객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관객 주도형(Made by Audience)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2회차 69편의 영화를 상영해 시민과 영화의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www.bif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부산국제영화제(☎1666-9711)로 문의하면 된다.

전재수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30년 동안 부산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자 영화도시 부산의 자력이다"라며, "올가를 영화제를 시작으로 불꽃축제, 지스타 등 풍성한 축제가 이어지는 만큼, 많은 분이 부산을 찾아 일상 속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요규 기자 hog@



예당고, 캄보디아 넷앙고와 '인성키움·나눔 힐링캠프'

광양제철소·화염사 탐방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상호 문화 존중 시간 가져

보성 예당고등학교(교장 이동호)는 지난 9월 22일 학교 내 대안교실 HWHH 동아리 및 마음챙김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키움·나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 바탐방 넷앙고등학교(Net Yang High School)의 'Hello, E-friends' 한국방문단과 예당고등학교 'Hello, E-friends'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예당고는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당고는 그동안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디지털 지도사(튜터)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원을 대상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이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신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인 화엄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포스코(POSCO)에서 한국의 현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Today's trip was so meaningful, and I wished it would never end because the bonds with our E-friends have grown so much stronger. I also learned a lot about the Korean temple 'Hwaemoesa' and discovered how advanced modern Korean technology is at POSCO, the nation's biggest manufacturer!")

"한국 학생들과 조를 짜서 함께 걸으며 웃고, 간식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미션을 수행했던 오늘 프로그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처음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훨씬 편안해졌으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oday's program was so special because we went on a field trip together with Korean students - walking in groups, laughing, eating, sharing snacks, taking photos, and completing missions to move to the next stop.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after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nd we truly learned to respect each other's cultures.")

한국 학생들은 "광양제철소와 화염사를 둘러보며 캄보디아 친

구들과 깊은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함께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며 금세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엄청난 기술력과 웅장한 규모를 보며 느낀 감동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고, 국경을 넘어 따뜻한 우정을 쌓은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여러 곳을 둘러보며 석탑과 건물들에 대해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에 먹은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캄보디아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주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해내며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산업 현장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해서 신기했고,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체험학습이 되었습니다."

예당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글로벌 인성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두수 기자 2580news@daum.net

울산교육청, AI 활용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270여 명 참여... 생성형 AI·AI 에이전트 활용해 실무 역량 강화 나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학교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0월 2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종하노베이션센터 운당홀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 2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학교 행정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별 1명 참석을 기준으로 안내했지만 신청



자가 이를 크게 웃도는 270여 명에 이르면서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하려는 관심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과정은 단순히 인공지능 도구의 기능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행정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을 올바르

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자율 수행 도구인 '에이전트'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익히고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연수에서 배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

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작성과 정보 정리 등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디지털 지도사(튜터)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원을 대상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이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Professional Audio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설거지 하던 소년서 엔비디아 창업까지’

인천 강화초 하상대 교장, 6학년 대상 ‘젠슨 황의 삶과 AI’ 특강

인천 강화초등학교(교장 하상대)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기업가의 삶과 도전 정신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지난 9월 29일 실시했다.

강화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젠슨 황의 삶과 AI’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엔비디아(NVIDIA)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의 성장 과정과 기업가 정신, GPU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스스로 생각해볼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설거지 하던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인 AI 기업의 리더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고, 낯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 시절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일하기도 했지만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공학을 공부한 뒤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했다.

하상대 교장은 젠슨 황의 어린 시절부터 엔비디아 창업, GPU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AI 시대가 열리는 과정까지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인터뷰와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한 인물의 성공 결과보다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도전했는지 생각하도록 했다.

이번 강의는 AI 중점학교로서 강화초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강화초등학교는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AI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 강의는 인천교육의 핵심 정책인 ‘읽견쓰’와도 연결됐다. 학생들은 젠슨 황의 삶을 읽고, 그의 도전과 AI 기술의 발전 과정을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좋아하

는가’, ‘AI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했다.

하상대 교장은 “젠슨 황처럼 세 계적인 기업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질문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읽견쓰 역시 세상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화초등학교는 앞으로 젠슨 황에 이어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적 인물들의 성장 과정과 일대기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배움, 실패와 도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성공의 결과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하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상대 교장은 “세계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각자의 삶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꿈과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I가 인간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강화초등학교는 AI 중점학교의 교육과 읽견쓰를 연결해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삶과 생각, 질문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배우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젠슨 황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일론 머스크와 세계적인 빅테크 리더들의 삶으로 이어질 강화초의 미래교육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질문과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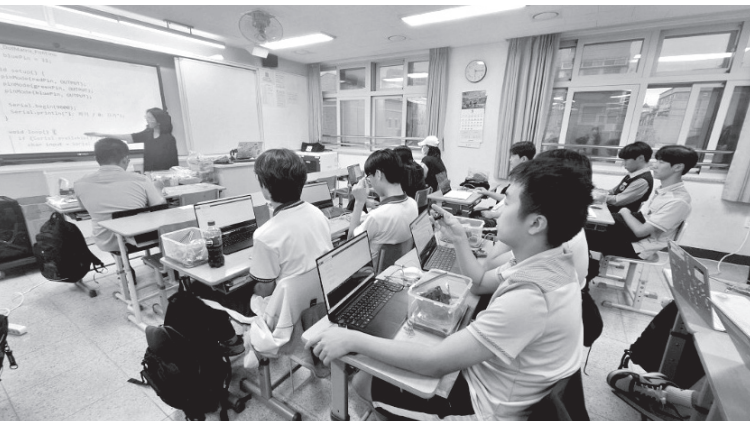
인천 부평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교육

고등학교 5곳 학생 16명 등 총 59명 참여 ‘지역나눔 AI 특강’ 성료

인천 부평고등학교(교장 백재암)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자율형 공립고 20·AI중점학교 사업의 하나로 ‘2026학년도 지역나눔 AI 특강’을 열고, 부평고 1·2학년 학생 43명과 관내 고등학교 5개교 학생 16명 등 모두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최근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은 화면 속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자동차 등 실제 사물과 결합해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피지컬 컴퓨팅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앱 제작을 아우르며, 학생들이 SW·AI에 대한 기초 이해를 넓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보며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부평고등학교는 AI중점학교로서 쌓아 온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부평고 학생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배움을 나누고자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이는 지자체·대학·기업 등 협력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의 핵심 가치인 ‘공생·공유·공감’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교가 보유한 AI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추진됐다.



특강은 이틀간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AI 바이블 코딩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홈 피지컬 컴퓨팅 교육 ▲로봇팔 제어 아두이노 교육 ▲메카넵월 아두이노 스마트 로봇 교육 등 4개 강좌로 나눠 운영됐다.

각 강좌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가 함께 강사로 참여해 체험·실습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었으며, 학생들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로봇을 조작하며 결과물을 완성해 나갔다.

부평고등학교 백재암 교장은 “학교의 담을 넘어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인공지능과 로봇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무척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자율형 공립고 2.0과 AI중점학교 운영으

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를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전 과정을 빠짐없이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부평고등학교는 이번 특강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참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인공지능 소양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평고등학교는 이번 지역나눔 AI 특강을 계기로 인근 고등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 2.0의 핵심 가치와 AI중점학교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교육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학생의 생각과 목소리가 중심되는 영화제 만든다

인천교육청,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잉키피플 워크숍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9월 12일과 19일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잉키피플 학생 45명과 집행위원회 위원 39명 등 총 84명을 대상으로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잉키피플 워크숍’을 운영했다.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시교육청 주관으로 11월 14일 개최되며, 제작부터 심사와 상영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하는 영화제다. 영화를 ‘읽고’, 작품과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영상으로 ‘쓰는’ 읽견쓰 활동이 영화제 전반에서 이어진다.

‘잉키피플(InKY People)’은 어린이·청소년 집행위원으로, 영화제의 작품 심사와 상영관 진행 등에 참여한다. 이는 영화에 대한 이해와 비평 능력을 갖춘 학생 심사위원을 양성하고, 학생이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워크숍은 실제 영화제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에는 ‘미션, 심사 마스터!’를 주제로 영화제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심사 항목에 따른 질문을 만든 뒤, 심사자와 출품자 역할을 맡아 대면·현장 심사를 실습했다. 심사표 작성과 결과 기록, 심사 기준 조정을 위한 의견 나눔까지 진행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둘째 날에는 ‘미션, 진행 마스터!’를 주제로 상영작의 줄거리와 메시지, 제작팀 등을 분석하고 작품별 진행표를 작성했다. 영화 소개와 관람 안내, 관객과의 대화 진행 등을 실제 상영관 상황처럼 연습하며 영화제 진행 역량을 길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잉키피플 활동은 학생들이 영화를 보는 관객을 넘어 작품의 의미를 읽고 질문하며 판단하는 학생 심사위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영화를 만들고, 읽고, 비평하고, 심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생각과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영화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선생님을 이겨라’

인천 신흥중,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성료



인천 신흥중학교(교장 고두한)는 지난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교장배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인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부제: 선생님을 이겨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두한 교장을 필

두로 한 16명의 교사팀과,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3학년 학생 선수팀(8개 조, 총 16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복식 15점 3판 2선승제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연습 기간을 거쳐 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점심시간마다 체육관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9월 22일에 열린 제7경기에는 고두한 교장과 신흥중학교 최고의 실력자로 꼽히는 문덕순 교사가 한 팀(교사팀)을 이뤄 출전해 큰 이목을 끌었다.

두 교사는 경기 초반 긴장한 탓에 학생팀(정태민·예주원)에게 1세트를 먼저 내주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베테랑다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매서운 추격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팀이 아쉽게도 교사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으나, 사제 간의 정을 나누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회를 마친 후 고두한 교장과 문덕순 교사는 함께 땀 흘린 학생들에게 상품을 수여하며 격려와 기쁨의 뜻을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S2B www.S2B.kr
학교장터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하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자살유가족, 지원 대상 넘어 자살예방 정책 주체로 나서야”

생명존중시민회의·한국생명운동연대 국회서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당사자 주도형 동료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갑작스런 사별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어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김대선)와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9월 16일 장종태·이성권·서왕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한편,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동료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은 한 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할 때 가족과 주변 사람 등을 포함해 여러 명이 영향을 받으며, 2024년 기준 자살 사망자 1만 4872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2만 명의 유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자살 유가족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가족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별 직후부터 회복 과정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살 유가족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와 주거 문제, 행정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동시에 겪을 수 있어 기존의 심리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

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주요 문제의식이었다.

김대선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경제적·행정적 위기에 놓인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가족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각종 행정절차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유가족이 또 다른 비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리·경제·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임상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살 유가족을 단순히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고위험군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임 공동대표는 “자살 유가족이 직접 경험한 사별과 회복의 과정 자체가 다른 유가족의 회복을 돕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 있다며, 유가족을 자살예방 정책의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이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구조적 과제로 바라보면서 유족 원스톱 지원 확대와 상담·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지원을 주도하는 구조가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이 지원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 평가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주도형 동료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 공동대표가 제시한 동료지원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회복 과정에 있는 유가족이 새롭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활정보, 회복 과정에서 얻은 도움을 공유하는 비임상적 지원 방식이다.

전문가의 치료나 상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곁에서 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체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공동대표는 “한국형 동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가족이 처음 지원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동료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기관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동료지원 활동가를 안정적인 유급 인력으로 양성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유가족 모임에도 다년도 직접 보조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과 소방, 응급의료기관, 장례식장 등에서 유가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료지원 조직으로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실시간 의뢰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 공동대표는 “동료지원은 유가족 보호를 넘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민관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자살예방 정책의 변곡점”이라며 “공공은 재정과 공간,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하고 유가족은 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유가족 당사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조

성래 국무조정실 법무부 생명지킴이추진본부 제도개선지원과장은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 돌봄 지원까지 끊김 없이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유족 원스톱 지원과 지역 자조모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동료지원 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대표는 “유가족들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이 재정적 기반과 제도적 안전망을 책임지고 마련하면서도 실제 활동의 방향과 운영은 유가족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동료지원 인프라이며, 유가족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양두식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자살예방 정책에서 유가족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운영위원장은 “유가족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자살예방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와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를 설립

하고 자살예방기관과 자살예방교육 강사 등에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에도 유가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실제 유가족의 경험과 요구가 지역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장종태·이성권·서왕진 국회의원은 “자살 유가족이 가족의 죽음을 이후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국회의원은 “유가족이 필요한 순간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을 ‘지원받는 대상’에서 ‘자살예방 정책의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유가족이 경험한 사별과 회복의 과정이 다른 유가족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 중심의 동료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공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유가족의 주도적인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주거·돌봄·행정지원과 동료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또 유가족의 경험이 실제 자살예방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련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김병선 기자 kbs@

김 춘 식 칼 럼

다문화 사회! ‘한국어 적응’을 넘어 ‘생각하는 정주형 인재’를 길러내는 새로운 학교를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의 한파가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교육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536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3.4%나 감소했다.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유치원이 160여 곳 이상 문을 닫는 등 교육 현장의 지형도가 급변하는 와중에도 확연한 역주행을 보이는 지표가 있다.

바로 이주배경학생 수의 증가다. 올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 수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나 늘어났으며, 이주배경 고등학생만 해도 최근 5년 새 2.7배 증가해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이제 이주배경학생은 우리 교실의 일상적인 구성원이자 공교육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소수 적응 지원’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전교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국 350곳에 달하고, 제

학생 100명 이상인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가 급증하면서 심리·정서적 상처, 교육과정의 양극화, 한국어학급 과밀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분출하고 있다.

최근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강조했듯, 핵심은 몇 명을 유치했는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한국어 습득을 넘어서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교육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실질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현장이 전남미래교육고등학교다. 이 학교는 AI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과 지식과 한국어 학습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중심에는 이창민 교장과 안상묵 교신,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하나의 ‘복

합적 성장 시스템’으로 접근한다. 교과 성취기준과 한국어 성취기준을 융합하고,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발표·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학 연계 기술 교육과 독일·우즈베키스탄 등과의 국제직업교육 교류, 한국문화 체험학습을 접목하여 졸업 후 자립의 발판을 제공한다. 이는 다문화 학생을 단순 ‘배려의 대상’이 아닌 ‘미래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체다.

하지만 이러한 선도적 모델이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 운용에 있어 출입국 관리 당국의 관리·검증 기준과 지자체·교육청의 인구 소멸 대응 방향 간의 시각차를 정교하게 조정하고, 직업계고 현실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

이미 30~40년 전부터 이민자 수용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온 독일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

은 학교와 현장을 오가는 이중 직업교육(이우스빌둥) 체계와 지자체·기업·학교가 참여하는 공공 관리망을 통해 유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현장 실무와 학문적 깊이를 병행하는 선진 교육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공교육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안적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취업과 대학 진학을 아우르는 ‘입체적 성장 로드맵’ 구축이다. 고교 단계의 직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 학사 및 학사 학위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고숙련 전문 인재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자 및 제도적 트랙을 다각화해야 한다.

둘째,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유연한 제도 운용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재 양성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출입

국 및 외국인 정책 당국 역시 미성년 직업계고 유학생에 특화된 정주 연계 가이드라인과 비자 기준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청 차원의 사전 검증 및 관리 역량 강화다. 재외한국교육원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검증으로 입국 전 한국어·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 지자체 연계 인권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과 융합 및 사고력 중심 교육과정’의 전국적 확산이다. 에듀테크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언어적 부족함이 지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과 수업의 질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저출산 위기는 역설적으로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전남미래교육고가 보여준 공교육 모델이 중앙부처의 유연한 결단과 교육청의 정교한 보안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때, 대한민국 공교육은 ‘준비된 미래’를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이자 한국독일사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역사철학부 석사학위(역사학, 교육학, 정치학), 동 대학 철학박사학위(서양 근현대사)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한국 교육의 독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나다』(포스트백합문명연구원: 소명, 2025) 등이 있다.

- ◇ 교육연합신문 논설위원
- ◇ 2024 칼만 펠로우(독일연방교육연구부, 아헨공과대학교)
- ◇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 겸 인문교육위원장
- ◇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 양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 前 포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좋은 채용은 좋은 지원에서 시작된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들은 한숨소리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로 원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만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채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개인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

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고용지원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이고 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왔다.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에게는 단순히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좋은 채용은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기업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고, 청년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을 만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고용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단순한 재정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채용 이후에도 직무교육과 현장 적응, 조직문화 형성, 경력개발까지 함께 이어질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까지 연결될 때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사람과 기업을 단순히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미래

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좋은 일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사람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청년 역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야 한다.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연결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진 가장 큰 가치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 (주)헤움(HRD) 대표이사
-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지원위원
-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지원위원회 위원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윤건영 교육감 “학교 현장 변화로 이어가야”

8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앞두고 학생 성장 위한 공교육 책임과 방향 제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10.8.)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4년간 학생의 성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더욱 넓히고 충북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00일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시작했느냐보다 앞으로 4년 동안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공교육의 책임을 어디까지 넓혀갈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



생님은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충북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은 민선 9기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책임지는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 ‘AI 공교육 1번지’, ‘K-안심학교’ 등 주요 정책의 실행 기반을 구축해 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방향이 학교와 교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현장에 맞게 다듬고 연결해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육 2기의 슬로건은 ‘한 아이의 우주를 키우는 충북교육’이라며 “아이들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살의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와 교육청,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유기성 기자 ygs@

전공지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더해

청주농업고, ‘프로젝트 한마당’ 본선 개최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류영목)는 2일 교내 농원관에서 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 창업아이디어 프로젝트 한마당’ 본선을 개최했다.

이번 한마당은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전공 분야에서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업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프로젝트형 창업교육

으로 진행됐다.

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 1~2학년 학생 83명은 주요 고객과 시장,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1인 1창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지난날 28일 서면심사를 거쳐 2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발표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필요성, 주요 고객, 실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의 질문에 답했다. 심사를 통해 우수 학생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학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창업 아이디어와 연결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진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했다. 유기성 기자 ygs@



한림디자인고, 세계 속에서 시야 넓힌다

일본서 4박5일간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인재육성 국외체험학습 실시

한림디자인고등학교(교장 허영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4박 5일간 1학년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고베·교토 일원에서 ‘2026학년도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인재육성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충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운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도시사대학을 방문해 교내에 세워진 운동주 시비를 살펴보고, 유카리노미술관과 청수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찾아 일본의 역

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고베에서는 코요음악댄스&아트 고등전수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펼쳤다. 한림디자인고 학생들은 충주시 공식 기념품과 직접 디자인한 리우 저블백, 손거울 등을 전달하고 합창 공연을 선보였으며, 양교 학생들은 K-POP 댄스와 노래 공연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눴다.

오사카에서는 소그룹 자율 탐방을 통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 곳곳을 둘러보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일본의 생활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영·국어·역사·건축·디자인·음악·패션·뷰티 등 다양한 교과와 글로벌 문화체

험을 연계한 주제탐구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체험에 앞서 각자의 탐구 주제를 선정했으며, 귀국 후에는 주제탐구활동 발표대회와 활동집 발간을 통해 현지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허영규 한림디자인고 교장은 “이번 국외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고, 인공지능 올바른 활용법 배워

‘AI·디지털 도약 주간’으로 미래 역량 키워



충북고등학교(교장 김기희)는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운영한 ‘AI·디지털 도약 주간’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도약 주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제작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충북고는 2026년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에 힘써 왔으며, 이번 도약 주간에는 ▲‘AI 대전환 페스타 2026’ 현장체험학습 ▲‘메이커 페어 서울 2026’ 탐방 ▲로봇 공학자 진로체험 ▲아두이노 활용 프로젝트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등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AI 대전환 페스타 2026’에서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

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로봇공학자 진로체험에서는 교육용 로봇을 직접 조립하며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아두이노 활용 프로젝트에서는 생활 속 불편을 찾아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사람이 다가오면 뚜껑이 열리는 휴지통과 교실 밝기에 따라 켜지는 조명 등을 직접 제작했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서는 전교생이 스마트폰과 누리소통망(SNS), 게임 과의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봤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과제나 생각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기희 충북고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과 함께 그 기술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도약 주간이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과 자신의 진로를 함께 그려 보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보고 만들고 체험하며 나의 진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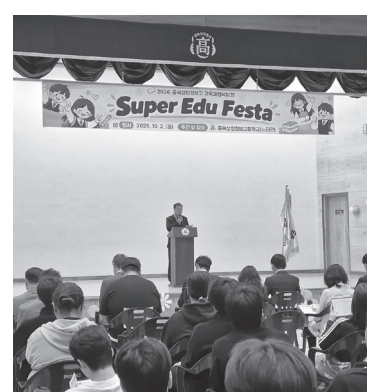
충북상업정보고, 교육과정 박람회 열려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교장 최순식)는 2일 교내 중앙현관과 느티관 등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청주시 지역 중학생, 협약기관 인사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전공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과 학교별 교육과정,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중앙현관에서는 ‘전성기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을 전시해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느티관에서는 ▲창업경영과 ▲항공물류서비스과 ▲사무행



정과 ▲미디어크리에이터과 ▲스마트관광과 등 5개 학과가 참여해 학교별 교육과정과 전공을 소개했으며, 진로·보통교과와 취업 관련 상담을 포함한 총 16개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창업동아리 체험·판매 부스도 선보였다. ▲비즈온 ▲숏플레이 ▲슈가프리 ▲스윗충상점 ▲요거

그래 ▲청마실 ▲책빵 ▲조록공방 ▲픽앤믹스 등 9개 창업동아리가 참여해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창업과 판매 활동으로 연결하며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청주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상호문화이해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청주시 지역 중학생 60여 명을 초청해 ‘충상정 미리보기’를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별 교육과정과 전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업계고의 다양한 진로와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했다.

최순식 충북상업정보고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이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후원 :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전 충청중 충청북 충청대 충청교 충청학 충청연 충청협 충청회 충청연 충청회 충청협 충청회 충청연 충청회 충청협 충청회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학생 삶과 연결되는 경제·금융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연수… 교원 전문성 신장·체계적 교육 콘텐츠 적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일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5층 우석홀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장·교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경제·금융교육은 천호성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교육과정'의 하나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

등학교 융합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되는 등 학교 현장의 경제·금융교육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수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내년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1개교를 신규 지정해 2029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박경훈 수석교사가 '학교에서의 경제·금융교육 필요성 및 수업 사례'

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사는 예적금 이자 비교 활용, 금융상품 조사, 은행원-고객 역할극, 옵티머스 펀드 사례 사례 분석 등 실제 수업에 적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소개해 관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관리자의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배움이 실제 삶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는 실천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14

일 KB금융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경제·금융교육 지원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임산 중등교육과장은 "경제·금융교육은 단순히 금융지식을 많이 아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삶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특수교육은 배려가 아닌 모든 아이에게 배울 권리”

전북교육청,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주요 현안·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전북 특수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전북 특수교육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북 특수교육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

전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학교 현장과 학부모, 복지기관, 정책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현장 수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감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전북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특수교육 주요 정책 및 사업 △

특수교육 현장 및 수요자 의견 수렴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국장 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일반학교·특수학교 교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복지기관,

정책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위원회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 2회 교육감이 직접 회의 결과를 공유받고 위원들과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전북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오는 10월 29일 위촉식과 함께 열리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전북 특수교육의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편하고 활용성 높은 교복 문화 개선

생활형 교복 전환 돕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매뉴얼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급 학교 교복 및 계약 업무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마련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학교주관구매 업무 추진 절차를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착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형 교복 전환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을 담은 교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개선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교복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디자인 변경, 구매계획 수립·심의, 업체 선정·계약, 검수·배부, 대금 지급 및 사후평가까지 학교주관구매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처음 교복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척 따라하기'를 통한 단계별 기안문과 계약 관련 서식 예시 △'길을 묻다'를 통한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와 각종 서식 △자주 묻는 질문과 교복 관련 유의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가이드라인 등을 담아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생활형 교복 전환에 따른 디자인 변경 절차와

계약 업무, 민원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던 교복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이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교복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학교주관구매가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은 편안하게 입고 학부모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교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유학 힘 모은다… 교육청·지자체 담당자 한자리

공동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발굴·운영 방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전북유학' 공동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전주비전대 학교 행복기숙사에서 13개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 및 13개 시군 전북유학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유학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전북유학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전북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도권 등 타 지역 학생과 유학생 가족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6년 전북유학 추진 실적과 2027년도 사업 추진 방



향 및 거주시설 조성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보임 토의에서는 유학생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거주시설 발굴 및 조성, 국고 공모사업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화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시군별 현장 운영 상황 공유 및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유학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작은학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대표적인 교육귀촌 모델로 언론과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수립된 시군별 제안과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2027년도 전북유학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의 실무 협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태 기자 kht@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만든다

전북교육청,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대상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2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실시했다.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9월 1일자 신규 고위직 발령자 및 상반기 미이수 고위직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14

개 시군별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조직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 사안에 대한 예방과 대응,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진행했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주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17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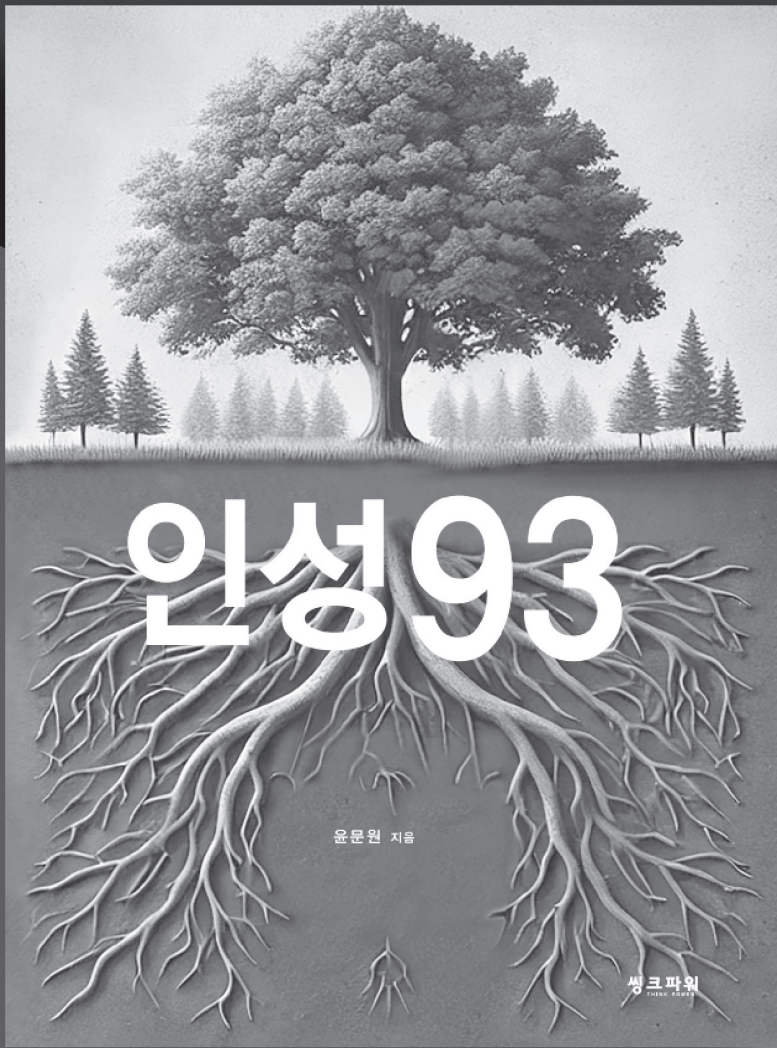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 및 교육전문직원 최우수는 이우진 교사(청원초)의 '감사 매뉴얼을 매달 실천하는 업무로 바꾼 '누락제로'가 선정됐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최우수는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고, 밖에서 찾다! 교직원 업무경감 플랫폼 '데이터 도구실' (정책기획과 주

원,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및 기관(부서)이 제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교육 및 교육전문직원 최우수는 이우진 교사(청원초)의 '감사 매뉴얼을 매달 실천하는 업무로 바꾼 '누락제로'가 선정됐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최우수는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고, 밖에서 찾다! 교직원 업무경감 플랫폼 '데이터 도구실' (정책기획과 주

무관 박호웅), 교육공무직원 최우수는 △카톡·도담반·CCTV 3중 안심 락(Lock)!(교양초 늘봄실무사 이정연)이 선정됐다. 또한 기관(부서) 최우수는 분청미래교육과 '기존 수동 배부 방식을 넘어, 공문서 분류를 인공지능(AI)이 척척!! 전국 최초 자체 개발로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 모델을 선도한다'가 차지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선발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와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적 교사’를 기다리며

“돈키호테 교사’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의 타락한 풍차는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

언제부터인지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얹혀 고소·고발을 당하며 교실의 사법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5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으나 현장에서는 갈수록 악성 민원에 의한 교권 추락으로 공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교사 살리기에 나서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유·초·중·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는 진정 어떤 인물인가?

세상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인물 돈키호테를 흔히 무모한 이상주의자나 환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로 기억한다. 우스꽝스러운 투구를 쓰고 거리의 거대한 풍차를 거인이라 부르며 달려드는 그의 모습은 현실 감각이 결여된 행동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곤 했다. 하지만 그가 외친 “풍차를 향해 싸우라(Fight the windmill)”라는 사자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타성에 젖은 세상을 깨우는 거대한 용기와 결기가 숨어 있다.

현역 시절 덕장이자 명장으로 알려진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돈키호테의 정신 자세를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대하고 불투명한 위협 앞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와 정의를 위해 주저

없이 돌진하는 야전의 군인 정신, 그것이 바로 현대판 돈키호테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쟁터와 비견될 만큼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학교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교사들에게도 이 돈키호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요구된다면 지나친 비교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재의 초·중·고 교육 현장은 서두의 표현처럼 무력감과 몸 사리기가 팽배해 있다. 교권 추락,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속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무사안일’과 ‘중립’이라는 안전지대로 피신하고 수동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풍차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거인이 나타나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영리한 처세술로 통한다.

그러나 소신을 버린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삶의 본보기와 용기를 배울 수는 없다. 지금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관성에 맞서 올바른 교육적 신념을 향해 돌진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교사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교육적 인물들 역시 당대에는 모두 ‘무모한 돈키호테’라 불렸다. 19세기 말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가 개혁적 진보주의 교육을 주창할 당시, 전통적 주입식 교육에 젖어 있던 사회는 그를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로 치부했다. 그러나 듀이는 타성이 라는 풍차를 향해 끝없이 교육 개혁의 창을 내던졌고, 마침내 현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미공군 사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인비행학교

를 설립하고 신민화 활동을 통해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임창호 목사나 노백린 장군 역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광인처럼 보였다. 무장 투쟁과 교육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던졌던 그들의 무모한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에서 소환하고자 하는 돈키호테 정신이란 무작정 현실을 무시하고 돌진하는 가벼운 호기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세상의 비웃음과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단단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교사는 입시라는 거대한 구조적 풍차 앞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다. 당장 눈앞의 성과나 안전에 연연하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교단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교사가 홀로 외롭게 풍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돈키호테 곁에 충직한 산조 판사가 있었듯, 교육 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사

회는 소신 있게 교육 활동을 펼치는 교사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을 향해 주저 없이 달려가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돈키호테 교사’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의 타락한 풍차는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인곡(仁谷) 전재학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前인산선교남중학교 교장
- ◇ 前제물포고·인천체원고 교장
-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 [월간교육목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윤 용 의

100세 칼럼

기침과 발열의 악순환 감기, 다중표적 면역 조절로 이겨내기

1.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바이러스의 침습, 감기의 병태생리 - ‘감기(Common cold)’는 인류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지만, 그 기저에 자리 잡은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비인두를 비롯한 상기도 점막이 라이노바이러스(Rhinovirus), 계절성 엔데믹 코로나바이러스(HCoV-229E, OC43, NL63, HKU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F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아데노바이러스(AdV)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시작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표면의 특이 수용체-에칸데 시알산(Sialic acid)이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CE2), 디펩티딜 펩티다아제 4(DPP4) 등-에 스카이크 단백질이나 혈구응집소(HA)를 결합하여 세포 내로 침투합니다.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숙주의 톨루사수용체(TLR3, TLR4, TLR7)와 세포질 내 센서 단백질을 자극하여 선천 면역 방어망을 가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 내 전사인자인 NF-κB가 핵 내로 이동하고, 세포질 내 다중 단백질 복합체인 ‘NLRP3 염증복합체(NLRP3 inflammasome)’가 활성화됩니다. NLRP3 복합체는 프로-카스파제-1(Pro-caspase-1)을 절단·활성화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 베타(IL-1β)와 인터루킨-18(IL-18)의 분비를 유도하고, 가스터민 D(GSDMD) 매개 세포 사멸(Pyroptosis)을 촉발합니다.

이어 종양괴사인자(TNF-α), 인터루킨-6(IL-6)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방출되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기도

점막 부종, 비루(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등의 전신 염증 증상이 폭발적으로 발현됩니다.

2. 진통제와 항생제를 활용한 감기치료의 딜레마 - 임상 현장에서 감기 초기 치료로 흔히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등은 당장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치료(symptomatic treatment)입니다.

이들 약제는 바이러스의 복제나 점막 손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장기 또는 과다 복용 시 위장관 출혈, 간독성, 심혈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Antibiotics) 처방’입니다. 유럽 이비인후과학회 가이드라인(EPOS 2020) 및 다수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급성 바이러스성 비부비동염(감기) 환자의 60~88%에서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으나, 실제 세균성 합병증이 입증되어 항생제 치료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0.5~2%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투여된 항생제는 치료 기간을 단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의 자연 치유 경과나 안와-두개 내 합병증 발생률에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항생제의 과용은 전신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폐 조직 내 대내성균의 출현과 집락화를 촉진하여 향후 난치성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아울러 감기 후 염증으로 민감해진

기도 신경과 점막 손상으로 인해 3~8주간 발작성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감염 후 기침(Post-infectious cough)’ 역시 일반 진통제나 진해거담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임상 난제입니다.

3. 폐와 장의 신경·면역학적 고리, ‘장-폐 축(Gut-Lung Axis)’의 통찰 - 최근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견 중 하나는 호흡기 면역과 소화기 면역계가 긴밀히 소통한다는 ‘장-폐 축(gut-lung axis)’ 이론입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강조해 온 “폐와 대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하에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肺與大腸相表裏)”라는 명제와 흥미로운 관련성을 보입니다.

호흡기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손상된 폐 조직에서 분비되는 케모카인 축(CCL25-CCR9)을 통해 폐의 활성화된 CD4+ T 세포가 장 점막 고유층으로 이동합니다. 이 세포들이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IFN-γ)는 장내 미생물총의 불균형) 초래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을 비롯한 유해균의 비정상적 과증식을 유발합니다. 증식한 대장균과 그 내독소(LPS)는 장 점막의 밀착연접 단백질(ZO-1, Claudin-1)과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sIgA)를 파괴하여 장벽 누수(Leaky gut)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세균과 독소가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다시 폐포로 역유입(Bacterial translocation)되며, 폐포 대식세포와 호중구를 자극해 전신성 염증이나 급성 폐 손상 등의 병리를 2차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분

해하여 생성하는 단쇄지방산(SCFAs: 아세트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은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하여 면역세포 표면의 GPR41/43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단쇄지방산은 조절 T 세포(Treg)의 분화를 촉진하고 과도한 NF-κB 활성화를 차단함으로써 폐포 내 염증 폭풍을 억제하고 손상된 점막 장벽을 신속히 복구합니다. 즉, 감기를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기도 국소 증상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장-폐 축 전반의 면역 항상성을 정상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의 결론입니다.

4. 감기와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는 한약의 현대 과학적 근거 - 현대 과학적 분석 기술과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을 통해, 복합 한약 처방과 천연 유효 성분들이 지닌 다표적(Multi-target)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기전이 다각도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약에서 유래한 거대분자 복합 다당류(Polysaccharides)의 생물학적 활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인삼(Panax ginseng), 길경(Platycodon grandiflorus), 백부근(Stemonae Radix) 등에서 분리된 다당체는 음전하 기반의 정전기적 상호작용과 입체적 삼중나선 구조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시알산이나 ACE2 수용체에 부착하는 첫 단계를 물리화학적 차단합니다. 동시에 세포 내 바이러스 복제 핵심 효소인 3CLpro 및 RdRp 복합체의 활성을 저해하며, 장내 유익균주를 선택적으로 증식시켜 혈중

단쇄지방산(SCFA) 농도를 높임으로써 장-폐 축 면역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둘째, 한의학의 대표적 처방들은 초기 염증 증폭을 강력히 제어합니다. 저명 국제 의학 저널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은교산(銀翹散)과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병용 투여는 타미플루와 동등 이상의 해열 시간 단축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바이러스성 폐포 염증 반응을 유의하게 억제했습니다. 황금의 바이칼린(Baicalin), 연교의 포시소사이드(Forsythoside), 금은화의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 감초의 글리시리진(Glycyrrhizin) 등은 TLR4/MyD88 경로를 차단하고 NLRP3 염증복합체의 조립과 Caspase-1 활성화를 억제하여 IL-1β, IL-6, TNF-α의 분비를 차단합니다. 이외에 행인의 아미그달린(Amygdalin)과 길경의 플라티코딘 D(Platycodin D)는 중추성 진해 작용과 함께 점막 분비 기능을 정상화하고 기도 과민성을 완화하여 감염 후 만성 기침의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로 방지합니다.

- 장-폐 축을 강화하는 식이 요법: 장내 미생물의 단쇄지방산 생성을 돕는 수용성 식이섬유(귀리, 버섯, 해조류 등)와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고지방·단순당 중심의 식단은 장내 유해 대장균을 증식시켜 폐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감염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호흡기 안정 약차(藥茶) 활용: 초기 인후 통증과 마른기침에는 항염·거담 효능이 입증된 도라지(길경)와 감초를 함께 달인 ‘감길탕(甘桔湯)’, 으슬으슬한 오한과 미열에는 파뿌리(총백)와 생강차를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성기 휴식과 점진적 활동 재개: 급성 발열기에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メラ토닌 분비와 T 세포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며, 해열 후 점진적인 가벼운 산책과 복식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면역을 깨우고 회복을 앞당기는 일상 속 호흡기 자가 관리법 - 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체의 고유한 면역 탄력성을 유지하는 생활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온도 및 점막 습도 유지: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상기도 상피 침투력이 극대화됩니다. 실내 습도를 40~60%, 온도를 20~22℃로 유지하고, 미온수를 수시로 마셔서 인후 점막의 섬모 운동성과 국소 방어 물질 분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외출 후 또는 비출혈 및 비루 발생 시 등장성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은 상기도에 부착된 바이러스 입자와 염증 매개 물질을 물리적으로 배출시켜 부비동염 및 하기도 합병증으로의 이행을 효과적으

감기는 단순한 계절성 질환을 넘어 인체의 면역 조절력과 점막 항상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과 폐의 유기적 연결망을 회복하고 신체 본연의 기운을 북돋우는 과학적 한의 치료와 올바른 일상 관리를 통해, 거친 기침과 감염의 굴레를 벗어나 맑고 건강한 숨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용

-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 (주)오름생약 대표이사

김 홍 제 의 목 요 칼 럼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자전거를 배울 수 없다

학교는 기성품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아이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균형을 잃을 때마다 자전거는 쓰러졌다. 위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던 부모가 슬며시 손을 놓는다. 아이는 그것을 모른 채 페달을 밟는다. 얼마를 달린 뒤에야 혼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홀로 바람을 가르던 기쁨. 그 성취감은 오래 가슴에 남는다.

요즘 부모와 학교를 볼 때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가정과

좋은 교육은 아이 앞의 모든 돌을 치워주는 일이 아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가 넘어질 기회를 줄이려 하고 있다.

지는 것도 안 되고, 뒤처지는 것도 안 되며, 다른 아이와 비교되는 것도 조심스럽다. 서울 초등학교에서 교내 상장이 줄어들고 운동회가 경쟁보다 놀이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일만 배우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

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해 준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졌다면 아이는 묻게 된다. ‘왜 졌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패배는 인격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배움 자료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가정교육의 경험과 실증을 통하여 이 진실을 느끼도록 교육해야 한다.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도 배움이지만, 상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더 큰 배움이다.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시험지에 답을 적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가 긴 인생에서는 더 단단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실패의 덕분이다. 도전과 실패는 인간을 성숙시킨다.

학교가 점점 이런 경험을 배우기 어려운 공간이 되고 있다. 교사는 칭찬 하나에도 형평성을 걱정하고 질책 하나에도 민원을 염려한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더 깊은 사랑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교 밖의 세상은 학생의 감정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 원하는 대학에 모두 갈 수 없고, 원하는 직장을 모두 얻을 수도 없다.

성실해도 선택받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고도 실패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다. 회피는 문제를 없애주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키우게 된다. 실패를 해석하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실제로 성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능력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가 더 깊이가

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실패를 견디고, 갈등을 조정하고, 타인의 승리를 인정하며, 자신의 패배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힘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가 그 힘을 키워 주어야 한다. 좋은 교육은 아이 앞의 모든 돌을 치워주는 일이 아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가르치는 일이다.



김홍제

-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성능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친환경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KSYS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친환경
1등급
GOOD
ELECTRICITY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 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